

조상의 흔적: 동아시아의 고인류

이상희(李相熹)

동아시아의 고인류는 20세기까지 주류로 자리 잡았던 생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한다. 하나는 아시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시점이다. 인류는 70만 년 전 이후 중기 플라이스토세에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로 확산했으며 확산의 배경에는 기후 변동과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적응 양식이 있었다. 70만 년 전 이전 전기 플라이스토세에 고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유라시아에 진출했다는 자료는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실패한 확산의 증거로 여겨졌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프레임은 인류의 확산 시점이 70만 년 전이 아니라 180만 년 전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연대가 올라가면서 확산에 대한 설명 가설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하나는 현생 인류의 기원이다. 고인류학계는 유럽의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의 관계에만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현생 인류가 등장하기 이전의 자료가 유럽에 치중한 이유도 있었다. 네안데르탈인과 현생인류가 어떠한 유전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다는 입장은 현생 인류의 유전체에 남아있는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을 밝혀낸 고유전학에 의해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고인류 화석의 부재/부족으로 논의의 주 무대가 아니었던 아시아에서 데니소바인이라는 유전자 중심의 집단이 발견되고,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현생 인류에게서도 발견되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자료에 큰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다. 아시아에 고인류가 드문드문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료가 드문드문 있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류의 진화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자료를 과학적인 과정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쌓인 결과물이라는 명제는 고인류학을 과학의 한 분야로 성립시킨 미국 인류학사의 영향이자 성과다. 그러나 고인류학 역시 과학으로서 학문으로서 정치성과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다. 자바원인과 북경원인은 많은 면에서 비슷하나 고인류학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은 매우 다르다. 북경원인의 위상에 중국의 현대사를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 발표자가 올해 아시아연구소에서 살필 주제는 동아시아의 고인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과 역사성이다. 화석과 고유전자 두 분야 모두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인류 진화에 대한 지식의 맥락을 전망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연구소에 소속된 학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

이상희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 미국 미시간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 소켄다이(總研大, 總合研究大學院大學)에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과학진흥회(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펠로우다. 인류학과장, 인문 예술 사회과학 대학 부학장 등 보직을 경험했다. 인류의 진화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으며 근래에는 고인류학에 대해 다양한 독자층을 위한 글을 썼다. 저술 활동으로 <인류의 기원>(이상희, 윤신영, 사이언스북스, 2015), <이상희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류 이야기>(이상희, 우리학교, 2018), <Close Encounters with Humankind: A Paleanthropologist Investigates Our Evolving Species>(Sang-Hee Lee, Norton, 2018), <Evaluating Evidence in Biological Anthropology: The Strange and the Familiar> (Cathy Willermet and Sang-Hee Lee, edit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등의 책과 30편 이상의 논문을 냈다.

일시: 2020년 11월 17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